일 주 문

예산 수덕사 혜암 · 벽초 스님 추모재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5월 11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덕숭총림 초대 방장 혜암 스님과 2대 방장 벽초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불일 보조국사 종재 및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61)755-0107

동산 스님 45주기 추모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5월 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동산 스님 추모재 및 동산문중 회의를 개최한다. (051)508-3122

G20 대사관 가족 템플스테이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8~9일 G20 국가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41)841-6221

경주 분황사 원효성사 열반 1324주기 제향대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5월 12일 분황사에서 원효 성사 열반 1324주기 제향대재를 봉행한다. (054)742-9922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관불법회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5월 8일 각원사에서 통일기원 청동대불 관불의식 법회를 봉행한다. (041)561-3545

대전 광수사 백옥관음상 점안

대전 천태종 광수사 주지 도정 스님은 5월 5일 광수사에서 백옥관음존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42)823-0332

진각종 종의회 사무처장 관명 정사

대구 진각종 선륜심인당 주교 관명 정사는 4월 27일 진각종 종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받았다.

직장인 재테크 아카데미

안동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5월 12일 이승화 건국대 교수의 부동산 재테크 강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직장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1206

병불련 용궁사 의료봉사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5월 8일 밀양 용궁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055)354-4464

interview

"한 사람의 장기기증, 8명을 살려요"

탤런트 송선미씨,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여덟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멋진 일이 또 있겠어요."

드라마 '민들레가족'에서 열연 중인 탤런트 송선미씨(사진)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에 위촉돼 장기기증 홍보에 적극 나선다.

탤런트 송선미씨는 4월 28일 서울 안국동 지하철역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식에 참석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일면 스님은 송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생명을 나누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를 당부했다.

송선미씨는 "이념과 종교를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방송 활동을 통해서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송씨는 "내가 죽고 나서 장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면 나도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송씨는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후 장기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송씨는 "남편에게 장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라며 "남편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에 (탤런트)김혜옥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던 터라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생명나눔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씨에게 홍보대사를 권했던 김혜옥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선미씨를 따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송씨가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 있었던 터라 내 말을 듣고는 바로 홍보대사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송선미씨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장기기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특히 신뢰할 만한 기관 · 단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선뜻 장기기증을 하지 못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 생명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6면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 만들 터"

태고종 인천교구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

"교구종무원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종도들이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를 만들겠습니다."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은 4월 30일 인천로얄 호텔에서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인천 관음정사 주지 · 사진)과 부원장 벽공 스님의 취임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은 취임법회에 앞선 인터뷰에서 인천교구 종무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취임에 앞선 3월 11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됐던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 대법회'에서 인천교구 종도들의 전폭적인 참여 속에 인천교구 종도간 화합을 확인했다.

홍제 스님은 "2010영산재에 많은 사찰 대중이 동참한 것은 인천교구 종무원의 역량을 확인시켜준 기회였다"며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무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중흥을 위해서는

종도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와 종단 발전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면서 "종단발전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대사회 봉사 · 포교활동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홍제 스님은 "처처에 부처가 있고, 처처가 도량이며, 처처마다 그대로 법"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인연연기(因緣緣起)를 바로 알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1975년 출가해 태고종 총무원장 비서실장, 종무위원, 인천교구 종무원 사정국장 · 부원장 등을 역임한 태고종단 내 행정통이다.

인천 관음정사를 1988년 창건한 이래 지금까지 홍제 스님은 개신교세가 강한 인천지역의 포교에 앞장서 왔다. 인천불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상임부회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위원장, 부평구 불교연합회장, 부평경찰서 경승위원장 등 인천 불교계에서 스님이 맡아온 소임은 스님의 인천지역 포교에 대한 원력을 짐작케 한다.

홍제 스님은 "지역별 분원을 조직해 종도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종무행정에 수렴하겠다"며 "소통 ·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기를 바로 알면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인천교구 종무원에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통해 세계일화(世界一華)를 구현하는 종책을 펼치겠습니다."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광주사암연 세계광엑스포 참관

광주 사암련 스님들은 광기술의 불교계 접목에 대해 모색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회원 스님 20여 명은 4월 26일 광주 세계광엑스포를 견학했다. 종교단체에 광엑스포 교육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광주시 측이 마련한 견학식에서 스님들은 빛 산업기술관, 과학관 등 주요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보현사 창건 100주년 맞아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왼쪽)이 보현사 창건 100주년 기념 보현보살상 점안법회를 집전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현사(주지 각만)가 4월 28일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동화사는 100주년을 기해 사찰 전통음식과 차문화 체험장, 명상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5미터 높이에 달하는 '보현보살상 점안법회'가 열렸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東大경주병원 불교회 지역의료봉사

경주병원 불교회가 실시한 의료봉사는 초음파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봉사가 실시돼 큰호응을 받았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지도법사 무구)는 4월 24일 경주시 왕신리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김강 교수(내과)를 비롯한 6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영상의학과) 교수 및 교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초음파 진찰 등 전문검사를 시행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경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과 수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태권도연맹 격파명인전

이날 세계불교태권도연맹은 격파명인을 선정하는 등 문화포교에 나섰다.

세계불교태권도연맹(총재 혜안, 무량종 종정)은 4월 24~25일 대전 시청광장에서 '제1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격파명인전'을 개최했다.

이날 격파행사에서는 곤봉무예의 김대경 씨 등 격파명인 10인이 선정됐다.

(031)964-5867

감사의 말씀

먼저 부처님 전에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공산문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신 동화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결과는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동화사 조실 진제 큰스님과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을 위시한 산내 원로 중진 큰스님들의 법력과 덕화가 모여 이루어낸 팔공산문의 위대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속한 대로 원융화합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교구본사의 대소사를 산내 문중의 중진들이 모여 논의함으로써 산중통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청정수행가풍과 승가위계질서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및 중앙종회 등 각급 중앙종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단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9교구 본사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오는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한국선불교를 세계화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지난 시간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수행자로서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애종심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자세로 교구 내에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신 투표인단과 팔공산문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로 중진 큰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스님들을 잘 받들겠습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당선인) 性門(성문) 합장